



## 첫 48개국 체제 월드컵... 한국 축구, 첫 원정 8강 목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은 처음으로 48개국이 경쟁하는 대회다. 종전에는 32개 팀이 조별리그를 치른 뒤 16강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렸는데, 이번 대회부터는 조별리그를 통과해도 32강부터 시작한다.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경쟁해 각 조 1~2위를 차지한 24개 팀이 먼저 32강에 직행한다.

나머지 8장은 성적이 좋은 각 조 3위 팀이 차지했다.

한국 축구가 2022년 카타르월드컵에서 이뤘던 16강 성적을 내려면, 조별리그를 먼저 통과한 뒤 32강에서 한 번 더 이겨야 한다.

참가국이 늘어 조별리그 통과는 예전보다 수월해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후 32강 단판 승부를 한 번 더 이겨야 하기 때문에 16강 진출은 더 어려

조별리그 통과해도 32강 단판 대결 이겨야 16강 진출

9월 미국 멕시코와 평가전으로 본선 경쟁력 점검

10월엔 안방서 세계 최강 브라질과 맞대결 가능성도

조 추첨은 12월... 북중미 광활해 조편성도 변수될 듯

위겠다고 볼 수 있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른 홍명보호의 목표는 첫 원정 8강에 이르는 것이다.

취임 당시 그는 "원정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가장 좋은 성적은 16강이었는데, 그보다 나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축구는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 이후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역대 첫 원정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그리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역대

코와 대결한다.

두 팀 모두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한국(23위)보다 높은 팀들이다. 미국은 16위, 멕시코는 17위다.

10월과 11월 A매치 기간에는 그보다 체급을 올려 세계적인 강팀과 맞대결로 월드컵 본선 경쟁력을 점검할 계획이다.

4차례 모두 안방에서 A매치기 예상되는데, 그중엔 세계 최강 브라질과 맞대결 가능성도 있다.

마침 브라질 대표팀은 10월 아시아 원정을 추진 중이다.

12월에는 북중미월드컵 조 추첨이 진행된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 조 추첨에 따라 대회 환경이 달라져 어느 곳에서 경기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 캐치볼 재개한 KIA 이의리, 마운드 복귀 시동

###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 복귀 2~3주 연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왼손 투수 이의리가 다시 캐치볼을 시작하며 마운드 복귀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이의리는 지난해 4월10일 LG 트윈스전에 선발 등판했다가 왼쪽 팔꿈치에 통증을 느껴 전열에서 이탈했다. 치료와 재활을 거쳐 5월29일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복귀전을 치렀으나 또 다시 통증이 발생했다.

정밀검사 결과 왼쪽 팔꿈치 내측측부인대가 손상됐다는 소견이 나왔고, 결국 6월 초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토미존 서저리)을 받았다.

이후 회복에 전념한 이의리는 올해 초 팀 스프링캠프에 참가하는 등 순조롭게 재활을 이어갔다.



다만 KIA는 이의리의 복귀 시점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했다.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과 야담 울리, 도종 에이스 양현종, 좌완 영건 윤영철 등으로 선발진의 구성을 맞춰기 때문에 이의리의 복귀를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당초 KIA는 이의리의 복귀 시점을 6월로 내다봤는데, 실전 등판을 앞두고 팔꿈치에 염증이 발견돼 뒤로 미뤘다.

휴식을 마친 이의리는 지난 4일 캐치볼 훈련을 재개했다.

4일 잠실구장에서 만난 KIA 이범호 감독은 "이의리가 다시 캐치볼을 시작했다. 차근차근 복귀를 준비할 것"이라며 "2~3주 정도 늦어졌는데,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KIA는 네일과 울리, 양현종, 김도현, 윤영철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선발진을 운영하고 있다. 1선발 네일이 건재하고, 원투펀치의 한 축을 담당 중인 울리의 기대에 걸맞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김도현은 데뷔 후 처음으로 풀타임 선발 투수로 맹활약하고 있다.

선발 로테이션에 이의리까지 가세하면, KIA의 선발 마운드 운영은 더욱 수월해진다. 지친 선발 투수들에게 적재적소에 휴식이 부여될 수 있다.

2021년 1차 지명을 받고 KIA에 입단한 이의리는 데뷔 첫해 19경기에 등판해 4승 5패 평균자책점 3.61의 성적을 내고 신인왕을 차지했다.

이의리는 2022년 29경기에서 154이닝을 던져 10승(10패)을 수확했고, 2023년엔 28경기에 나서 131⅓이닝을 소화하며 11승(7패)을 따내면서 주축 선발 투수로 자리매김했다.

/뉴시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에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북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커뮤니티인 친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중외공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세영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세영 GS건설 | (주)한화/건설 | HDC현대산업개발

## 무더위에 관중 난입까지... 이라크 원정 이겨낸 홍명보호

우려했던 이라크 원정을 이겨낸 홍명보호가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란 쾌거를 이뤘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6일(한국 시간) 이라크 바스라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이라크와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9차전 원정 경기에서 2-0 승리했다.

후반 18분 김진규(전북), 37분 오현규(현크)의 연속골을 앞세워 퇴장으로 10명이 된 이라크를 제압했다.

5승 4무(승점 19) 무패 행진을 이어간 한국은 B조 6개국 중 선두를 지키며 3위 이라크(승점 12·3승 3무 3패)와의 승점 차를 7점으로 벌렸다. 이로써 남은 쿠웨이트와의 최종 10차전 결과와 상관없이 북중미행 티켓을 따냈다.

수적 우위를 활용해 비교적 손쉬운 승리를 거둔 듯하지만, 이라크 원정은 온갖 악재로 쉽지 않은 경기였다.

밤에도 기온이 섭씨 40도에 육박한 무더위는 선수들의 숨을 평소보다 가쁘게 만들었다.

경기 초반 이라크의 거센 압박에 흔들리며 템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여기에 5만여 명의 이라크 홈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도 태극전사를 위축되게 했다. 아무리 경험 많은 선수라도 이런 분위기에선 제 기량을 발휘하기 어렵다.

실상가상 경기 중 관중석에선 난투극이 일어났고, 관중의 그라운드 난입도 두 차례 발생하는 등 매우 불안한 상황이 이어졌다.

그런데도 선수단은 최대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승점을 따는 데 끝까지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2-0 승리 종료 휘슬이 울리자 선수단은 즉시 드레싱룸으로 향했고,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플랜 카드를 들고 기념 사진을 찍으며 북중미행의 기쁨을 차분하게 즐겼다.

이라크 원정을 철저히 준비한 대한축구협회의 노력도 결실을 봤다.

여행금지 국가인 이라크 원정을 위한 배정기회를 띄웠고, 선수단을 최소화해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또 현지 무더위 적응을 위해 다량의 얼음통을 준비하고, 선수단 맞춤 식사로 컨디션을 조절했다.

아울러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훈련도 늦은 밤 9시로 잡는 등 디테일도 신경 썼다.

부상 여파로 제 컨디션이 아니었던 주장 손흥민 관리도 성공적이었다. 손흥민을 무리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던 홍명보 감독은 이날 과감하게 손흥민을 출전 명단에서 제외했다.

대신 이강인(파리생제르맹)과 황희찬(울버햄튼)으로 측면을 구축하고, 베테랑 이재성(마인츠)에게 주장 완장을 맡겼다. 후반 조커로는 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1 전북의 선두 질주를 이끄는 김진규, 전진우를 활용해 효과를 보는 등 전략적으로도 대응이 인상적이었다.

/뉴시스

## 스포츠 메카 강진, 강진청차배 중등 축구 페스티벌 개최

### 전국 중1 선수 512명 참여 지역 상권·숙박업계 훈풍 기대

전국 각지의 중학교 1학년 축구 유망주들이 스포츠메카 강진에 모여 열린 경기를 벌인다. 강진군이 오는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2025 강진청차배 중등1학년 축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전남축구협회가 주관하고, 강진군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전국 단위 유소년 축구 행사로, 총 512명의 선수와 128명의 행사 관계자 등 총 64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경기장은 강진종합운동장, 청차2구장, 양광구장, 다산구장 등 군 내 4개 주요 축구장에서 분산 운영된다. 참가팀 전원은 지역 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계획이며, 팀 관계자 및 가족 등까지 포함한 총 대회 기간 중 체류 인원은 약 2,5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약 2억 4천4백만 원 규모의 지역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선수단의 숙박, 식사, 소비활동 등을 포함한 4일간의 직접 소비 효과를 기준으로 산출된 수치다. 실제로 지역 상권과 숙박업계, 음식점 등이 대회를 앞두고 기대감을 보이고 있으며, 비수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대회는 전국 유망주들이 강진에서 실력을 겨루는 기회인 동시에, 지역 경제와 스포츠 기반을 함께 키우는 중요한 행사다. 안심하고 강진군을 찾아 체육인들이 기량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관내 식당과 시설물을 다시 한번 점검해 안전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회를 지속 유치해 강진을 스포츠 메카로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시키겠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